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준비 착착

207개국 1만5000명 광주로 집결, 3번째 개최 조직위, 인력 확대 슬로건·마스코트 FINA 제출 오는 30일 FINA기 인수·北 참가 추진 TF 구성 저비용 고효율, 문화행사 다채 도시브랜드 “UP”



지난 6월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9회 동아수영대회 겸 제18회 2017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테스트 이벤트가 열린 가운데 수영 여자 중등부 자유형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 D-2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꼬박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2019년 7월19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2019 팬 아메리칸 대회'와 일정이 겹치면서 국제수영연맹(FINA) 건의로 1주일 앞당겨졌다. 대회 개막 2년을 앞두고 조직위원회는 직제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슬로건·엠블럼·마스코트도 잠정 확정했다. 오는 30일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FINA기(旗)를 인수하게 된다. 북한 참가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도 운영될 예정이다.

막대한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에 도시브랜드 제고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총사업비 증액과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대회 개막 2년을 앞두고 준비 상황과 개최 의미, 기대 효과, 5년 5개월간의 발자취,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세계 수영 별들의 진차...조직위 “비싼다 비싸”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7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7월29일~8월11일까지 14일 간 열린다.

선수권대회는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등 6개 종목에 75개 경기가 남부대와 진월테니스장, 장성호 등지에서 치러지며, 마스터즈 대회는 참가자 나이를 5세 단위로 나눠 진행되며, 메달도 통상 70여 개에 이른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그동안 17차례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

이(2011년)에 이어 광주가 3번째 개최도시다.

D-2년을 맞아 조직위원회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2단계 조직개편안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1총장 1본부 2부 5팀 35명인 조직이 1총장 3본부 6부 1담당관 17팀 100명으로 확대됐다. 곧바로 이달부터 조직 개편에 들어갔고, 일부는 중앙 부처와 전남도 파견인력으로 채웠다.

조직위는 2018년 7월 80명을 추가 승인을 받을 경우 전체 인력이 180명으로 늘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차질없는 대회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회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과 엠블럼, 마스코트(수달)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잠정 결정된 뒤 FINA에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다.

오는 30일에는 2017대회 폐막식이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대표단을 보내 차기 대회 개최도시 자격으로 FINA기를 넘겨 받을 예정이다. 노후우 전수를 위한 실

무 참가단도 20명 규모로 꾸려 현지로 파견했다. 8월26일에는 FINA 기 인수 환영행사가 열린다.

올 하반기에는 스폰서십 마케팅 협의, 대회 흥행을 위한 FINA 차원의 지원 방안 협의, 대회 IT분야 설계, 경기장시설과 선수촌 사용 협약에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다.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위한 TF팀도 꾸려진다. 윤장현 시장은 최근 “수영대회가 단순한 스포츠교류가 아닌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도 북한 참가를 자신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1697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반적 운영 기조는 ‘저비용 고효율’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장 시설은 역제하고 관람석 규모도 FINA와 협의해 주경기장은 1만5000석에서 1만1000석으로, 나머지 경기장은 5000석에서 3000석으로 축소했다.

5개 경기장 중 2곳은 관람석 확충과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나머지 3곳은 임시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선수촌도 도심의 노후 아파트인 송정공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15~25층 높이 25개동, 1660가구가 건립돼 대회 기간 6500여 명을 동시수용하게 된다.

이밖에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과 교통 문제 ▲외국인 입맛에 맞는 먹거리 ▲광주~전남~전북을 잇는 호남관광 ▲시내 면세점 등 쇼핑문제 ▲시민 자원봉사자 운영 등 손님맞이 준비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특히 수영대회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중이다. ‘문화행사전문위원회’도 꾸렸고, 개최도시로서의 정신과 대회이름을 반영한 장기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행사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11일 “광주대회는 문화·스포츠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지구촌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면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 광주시, 조직위 등 관계 기관이 현원체제가 돼 성공 대회를 일궈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세계수영선수권 개최 의미와 기대 효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드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대회 기간은 31일로 올림픽보다 14일이나 더 많다.

참가 규모와 흥행 면에서도 하계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4대 메가 스포츠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육상선수권대회와 비교해도 월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9년 대회는 2015 러시아 카잔대회 이후 국가대표 대항전인 챔피언십과 전 세계 동호인들의 대회인 마스터스대회가 동시에 열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와 권위를 가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 주관으로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며 수영(Swimming), 다이빙(Diving), 오픈 워터(Open Water), 수구(Water Polo),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Synchronised Swimming) 등 5개 종목, 17일간 펼쳐진다. 또 세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대회가 14일동안 함께 개최된다.

참가 규모만 207개국에 선수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아클 펠프스나 박태환, 윤양 등 대륙별 스타 선수 출전으로 전 세계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2011년 상하이 대회 방송가치가 18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대회 위상 만큼이나 기대효과도 크다.

우선 광주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4년 만에 또 다시 국제적 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경우 스포츠 선진지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다.

또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친환경차와 정보기전,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등에도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디자인 비엔날레, 김치축제, 충장축제, 프린지페스티벌, 청년축제 등이 집중화될 경우 국제 문화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3% 높아지고 국내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

3대 메가드 스포츠 이벤트...국제도시 도약 기회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커 지역 발전 단비

입원 등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그 동안 모두 17차례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광주가 3번째 개최 도시다. 1973년 옛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2001년 제9회 일본 후쿠오카 대회 때부터 격년제로 홀수해에 치러지고 있다.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 때부터는 현역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대회가 통합 개최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는 FINA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로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적 도시들이 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호주 멜버른(2007년), 이탈리아 로마(2009년), 중국 상하이(201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2008, 2013년) 등 지난 10년 간 개최도시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10억 여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 명이 언론을 통해 대회소식을 접할

효과를 100조원 이상 거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광주전남연구원원은 생산 유발효과 2조4000억원(광주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원(광주 6500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4000명(광주 1만8000명)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광주가 대한민국 수영 선도시로 도약해 수영이 지역 스포츠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고용석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지원부장은 11일 “대회 개최를 통해 광주가 열게 되는 유·무형의 기대효과는 막대하다”며 “구축된 수영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영인재의 체계적인 육성, 지역사업과 연계한 수영산업 육성, 국내·외 대회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수영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지역구감, 미래창조, 정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